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투명한 연구비 관리체계 반드시 확립되길”

서울대 58년 역사상 첫여성 처장으로 임명됐던 노정혜 연구처장(생명과학부 교수)이 7월말로 2년간의 임기를 끝냈다. 노 처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맡아 진실 규명에 중요한 일을 해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당시 노 처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생중계에서 차분한 어조와 절제된 표현, 힘 있는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서울대 자연대 수석 졸업, 20대 서울대 여교수 임용,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 김영란(대법관)과 고교 동기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 연구처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운찬 서울대 23대 총장의 이임식이 열리던 지난 7월 19일, 서울대 본부의 연구처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과학자가 행정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선입견일 뿐”이라며 “과학자는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터뷰 | 이은정 _ 본지 편집위원

🕒 서울대 58년 역사상 첫여성 처장으로 연구처를 이끌어오셨는데요. 임기를 마치는 감회가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행복합니다. 주위에서 너무 좋아하는 게 드러난다고 표정 관리 좀 하라고 하더군요. 연구처장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의 첫여성연구처장이었던 것은 맞지만 첫여성처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불편하네요. 부처장급 보직으로 이미 몇분의 여교수님들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또 제가 임명될 때도 이미나 교수(사회교육)와 함께 처장이 됐으니 ‘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은 아닙니다.

❖ **서울대 연구처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연구비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일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대학원생들이 연구비를 관리하고 보고까지 하면 안 되죠. 영수증 처리하느라 연구할 시간을 많이 빼깁니다. 또 주먹구구식 관리로 허점이 생길 수도 있지요. 지난해 공대에서 일어난 연구비 비리 문제로 연구비 관리 체계를 다시 만들 만한 토양이 갖추어졌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구비, 즉 간접비는 대학원생이 아니라 행정직원들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인력을 많이 충원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다음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 **지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생길 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년의 재임기간 중 가장 컸던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일이니까요. 사이언스 논문 진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정운찬 총장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인문사회학 분야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태가 생기면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하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 총장께서 당장 시작하라고 하면서 조사위원회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었지만 총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진실을 밝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조사위원회의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이나 발표 내용 때문에 황우석 지지자들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더 잘할 수도 있었겠고,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황우석 교수 팀과 PD수첩팀간의 공방이 벌어지면서도 정보가 너무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심정적으로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죠. 그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을 잡고 진실을 밝혀낸 것만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마 더 잘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9명의 조사위원들이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논문 조작 사건에 비해 한국이 훨씬 빨리 논문의 진실성을 규명하고 사태 수습을 했다고 봅니다.

❖ **서울대 본부 앞에서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고생도 많으셨는데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지나간 일인데 다시 거론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쉬 다음 출근했을 때 어떤 분은 꽃을 보내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직접 찾아와 걱정과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주위의 따뜻한 도움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 사회는 너무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큰 충격이 닥쳤는데 그 충격을 해소시킬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충격이 대중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모두에게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 **최근에 서울대 수의학과 이병천, 강성근 교수에 대한 재징계가 열려 강성근 교수는 해임되고 이병천 교수는 정직 3개월을 받았죠. 검찰이 발표한 연구비 횡령 규모를 볼 때, 이병천 교수가 2억9천600만 원, 강성근 교수는 1억1천200만 원으로 이 교수의 횡령 규모가 큰 데 강 교수만 해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징계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 **정운찬 총장이 노정혜 처장을 특별히 총애하고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정운찬 총장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 총장께서 특별히 저를 신임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웃음). 모든 분들에게 허물없이 대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엔 모든 분을 총애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정 총장은 선이 굵은 리더형입니다. 솔직하고 분명한 성격이라 함께 모시고 일하기 편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단 큰 결정을 한번 내리면 별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조사 때도 조사위원회에 확실한 권한을 주었죠.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줘니

다. 그러므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정운찬 총장이 언제 정치권으로 갈지, 외부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총장의 개인사이므로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 (정치에) 뜻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정 총장에게 손짓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대 총장으로서 정 총장이 가진 카리스마 때문 아닐까요. 정 총장께서 여러 제도적인 개선을 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치적이라고 하면 지성의 권위, 대학의 권위를 살린 것이라고 봅니다.

🔹 노 처장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제의를 받았다가 과기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는 등 소문이 많은데요.

정말 소문일 뿐입니다. 제의를 받았다가거나 한 일은 전혀 없어요.

🔹 보직 교수로 있는 동안 실험실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연대 실험실은 거의 24시간 운영체제인데 제가 보직을 맡고 있으니 제대로 되긴 힘들었죠.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실험실에 들르고 저녁에 본부에서 일이 끝나면 다시 실험실을 둘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잠깐 가는 것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긴장이 되고, 저도 스스로 자극을 받았습니다. 특히 1주일에 2번 있는 실험실 세미나는 거의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오후 5시쯤으로 시간을 잡아서 1시간 정도 학생들과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실험실로 출근해 학생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제일 미안하죠(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며칠 쉬는 동안에도 노 처장은 토요일 날 실험실에 나갔다는 후문이다).

🔹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둘째가 지난해에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 사태가 한창 터졌을 때 아들은 대학입시를 치르고 있었죠. 당시에 저는 거의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일하느라 아들에게 도시락 한번 못 싸줬습니다. 요즘은 학원에서도 급식을 주더군요. 끼니는 모두 학원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우리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공부하느라 바빴

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아마도 부모를 만다가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겠죠.

🔹 자녀분 중에 이공계를 전공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사회적으로 이공계 기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같은 분이 자녀를 이공계로 보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큰애는 원래 이공계로 보냈었는데 본인이 대학을 한해 다니고는 다시 입시를 거쳐 문과로 갔습니다. 적성이 맞지 않는데 부모가 억지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냥 뒀습니다. 사실 남편도, 저도 이공계인데 애들 2명이 모두 문과니까 속스러운 면도 있어요. 부모가 별로 모범을 못 보았나 봅니다(참고로 노 교수는 서울시립대 공대학장인 오명도 교수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요즘 한국의 생명공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한국에서 바이오 관련 우수한 연구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지만 열심히, 활기차게 일하는 젊은 과학자가 많아요. 젊은 교수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대뿐 아니라 약대, 공대 등 이공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생물물리학 전공자를 특채로 뽑아 화제가 되기도 했죠. 원래 특채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에 따라 특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도와주었다고 봅니다.

🔹 1986년 서울대 미생물학과에 임용되실 때 29세의 젊은 여 교수였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뛰어난 업적 때문에 남자들을 물리치고 교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생명과학분야는 여성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과학계에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결혼을 하면 학업을 그만둔다든가, 연구에 100% 전념할 수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뛰어나야 동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로 임용된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요. 제 동기나 선후배들을 보면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유명희 박사는 한해 선배구요, 올해 한국로레알여성생명과학자상을 받은 백경희 고려대 교수는 제 동기입니다. 다들 열심히

히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습니다. 요즘은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후배 여성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합니다.

▶ 서울대가 2학기부터 추진하는 신진 석좌교수제도란 무엇인가요.

서울대는 세계를 리드하는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 신진 석좌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일단 이번 학기에는 3~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신진 석좌교수제는 기존의 석좌교수제와 달리, 특히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45세 미만의 젊은 연구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혜자격은 국제적인 연구 능력과 업적을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자로서, 3년간 매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강금실 전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과 경기여고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이나 최근 친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자주 못 보더라도 각자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 그냥 그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롭습니다.

▶ 과학자로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특이점은 없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보직 교수는 문과 출신이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자가 보직교수를 하는 게 상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여러 데이터를 모두 관찰하고 여러 가지 가설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고르도록 훈련받았잖아요. 합리성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과학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적인 일들을 잘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사회 계열의 교수님들과 얘기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본부에서 지낸 2년 동안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보직 교수가 되면 실험실이 제일 문제죠. 외국의 경우 보직 교수 대신 연구실을 운영할 수 있는 포닥(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과학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실로 돌아가 그 동안 못한 연구에 몰두할 예정입니다. 제 연



She is ...

- 1957년생
- 1979. 2.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 1984. 2. 미국 위스컨신대 분자생물학 박사
- 1986. 9. 서울대 자연대 미생물학과(현 생명과학부) 교수
- 1997. 8. 서울대 자연대 부학장
- 2002. 제1회 한국로레알여성생명과학자상 수상
- 2002~ 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장
- 200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 2005~ 기초기술이사회 이사

구 분야는 미생물의 스트레스 메커니즘을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생물이 환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알아내는 거죠. 지난 7월초 미국의 고등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으로는 에너지를 실험실에서 써야죠. **SD**